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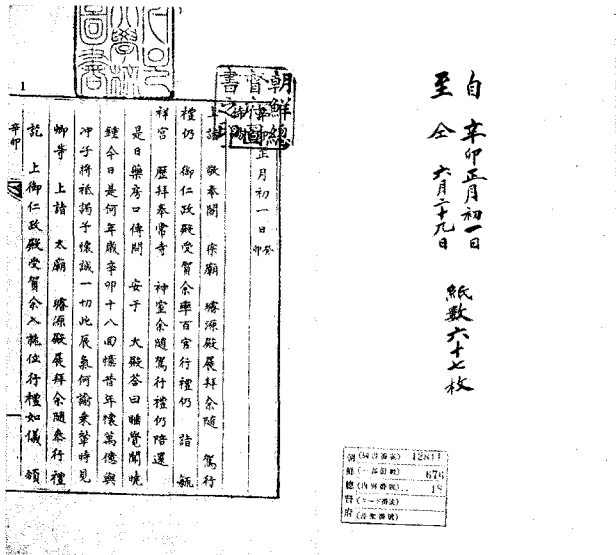
일성록 /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일성록 국보 제153호로 임금입장에서 펴낸 일기
5·18기록물 한국 및 동아시아 민주화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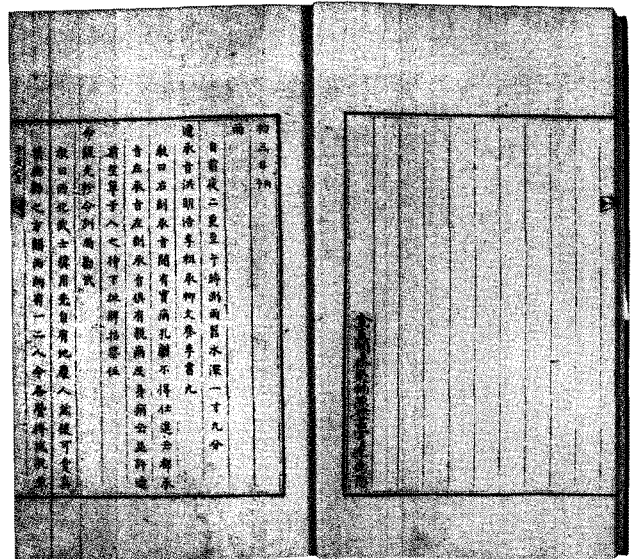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성록' (국보 제153호)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2011년 5월 25일자로 영국 맨체스터에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또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2013년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총 9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일성록 내자와 서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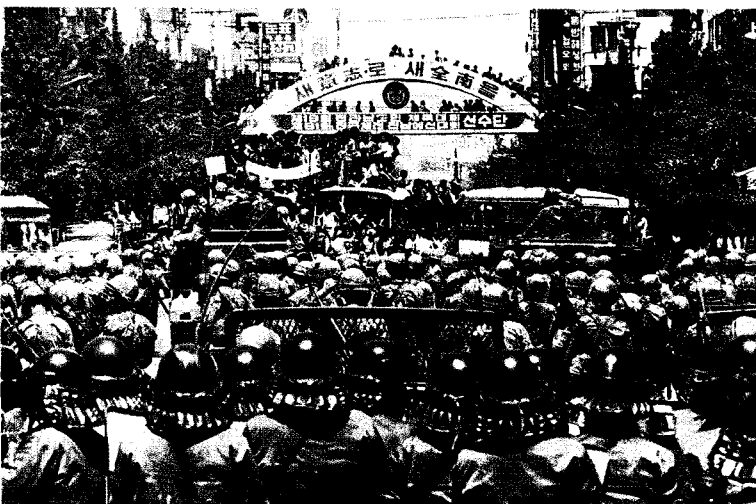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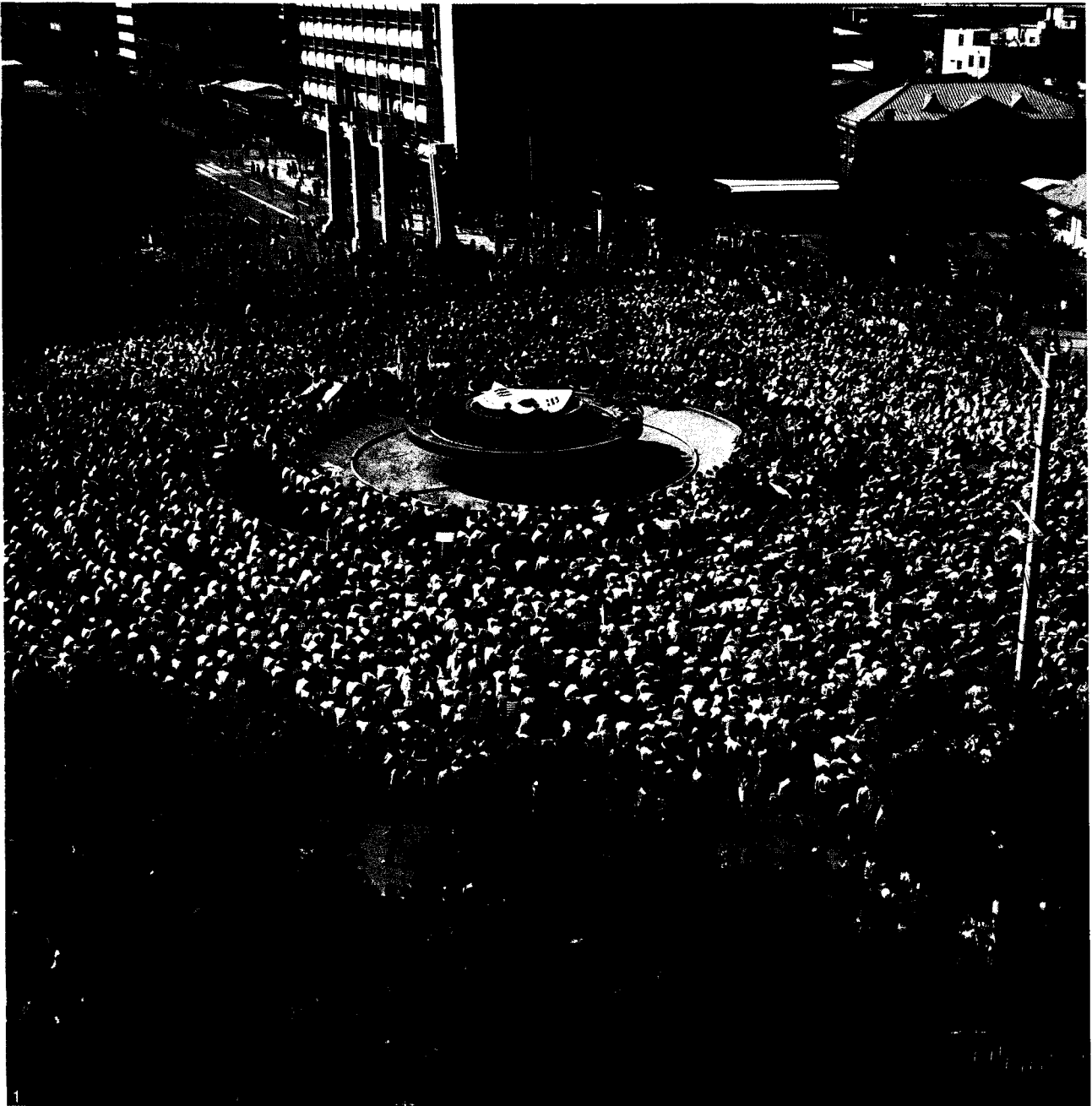


일성록(日省錄)은 2009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기록물로서 2010년 3월 22일 신청서를 제출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소위원회 심사에서 '등재권고' 결정을 받아 이번에 최종 등재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에서 2010년 3월 29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 "조건부 등재권고"를 받았으나, 추가 자료 보완 등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된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당 최대 2개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의 기록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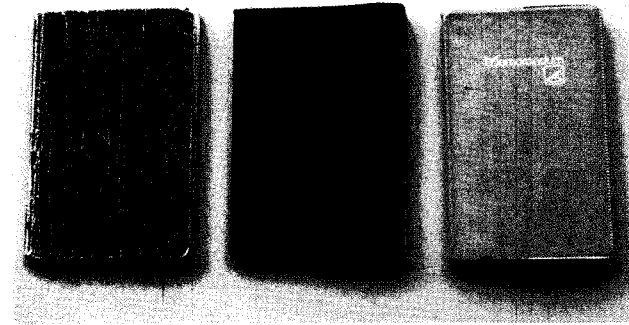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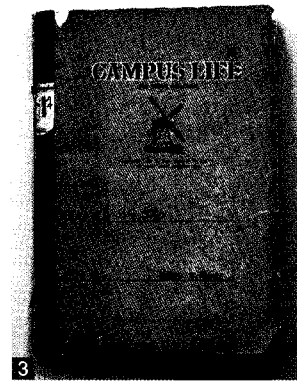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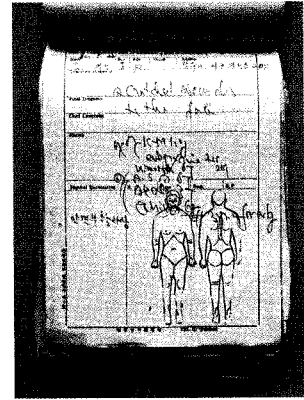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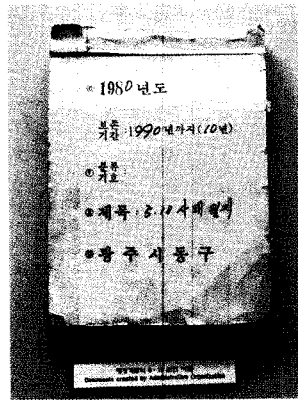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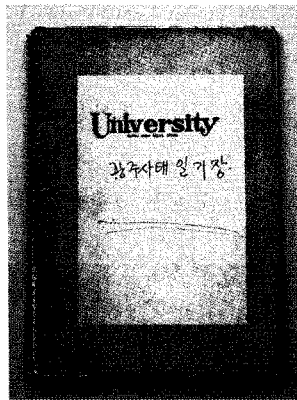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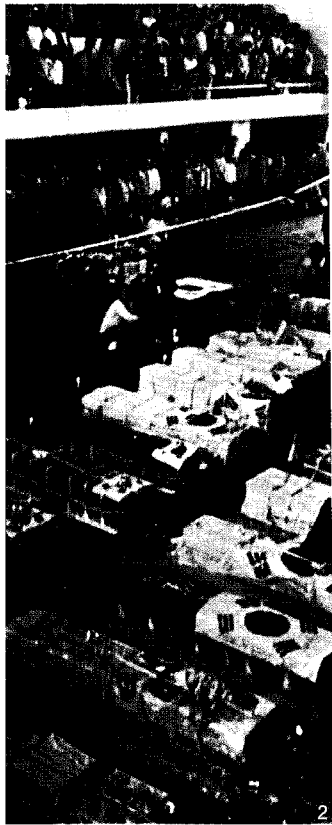
일성록

일성록은 국보 제153호로 1760년(영조 36년)에서 1910년(융희 4년)까지 편찬되었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국왕을 3인칭인 '상(上)'인 아닌 1인칭 용어인 '여(予: 나)'로 표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필사본으로 한 질만 편찬된 유일본이며 총 2329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전하고 있으나 21개월분이 빠져있다. '일성록'의 모태가 된 것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이다. 정조는 '논어(論語)'에서 증자(曾子)가 말

한 '오일삼성오신(吾日三省吾身: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찍부터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규장각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한 다음 5일마다 일기를 정서하여 이를 국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정조는 '일성록'이 자기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승정원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성록'을 편찬하도록 지시하였다. "옛날을 보는 것은 지금을 살피는 것만 못하고,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반추하는 것만 못하다." <일성록 서문> 이에 따라 '일성록'은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강(綱: 표제)과 목(目: 세부 사실)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국정 운영에 참고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는 체제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성록'은 정조의 개인 일기에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하게 되었다. 책의 제목은 증자의 말을 인용하여 '일성록(日省錄)'으로 했다. '일성록'은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적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성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 내용과 형식의 독창성, 진정성, 그리고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1997년 등재), 승정원일기(2001년 등재)와 함께 동일한 시대에 작성된 연대기가 형식과 내용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모두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1.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2. 5·18희생자들 3. 공공기관 및 병원에서 작성한 5·18 자료들과 일기장들. 개인이 작성한 일기도 5·18 민주화 기록물에 해당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5·18기념재단,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미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은 총 9주제로 구분하였고, 기록문서철 4271권, 85만8900여 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컷 등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3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행정 문서,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당시 국가 체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기에는 사건 당시와 그 후 현장 공무원들에 의해 기록된 상황일지 등의 자료 등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보상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통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단체들이 작성한 문건과 개인이 작성한 일기, 기자들이 작성한 취재수첩 등이다.

이제는 누렇게 변색된 각종 성명서, 선언문, 대자보, 일기장과 취재수첩을 통해 당시의 급박하고 절절했던 상황과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진 기자들과 외국 특파원들이 촬영한 사진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증언 테이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종료된 후 군사정부 하에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법원 등에서 생산된 자료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 등이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는 필리핀, 태국, 대만,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늘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이 선례로 이야기되었다. 이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이번 등재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 대사에 관한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